



이중선 · 신용 익산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중앙·평화·인화·미동), 신용 의원(삼기·영동·삼성)이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중선 신용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정 발전 방향을 적극 제언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혁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지역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을 끄집어내면서 민생을 살피고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선 의원은 "뜻깊은 삶을 받게 돼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혁신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면서 분주히 뛰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현안 사업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신용 의원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하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읍 송준호 씨,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

정읍 청년농업인 송준호 씨(28)가 지난달 30일 전북농업기술원 주최로 열린 '2023년 전북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청년이 가진 농업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사례를 공모해 시상·홍보 함으로써 농신농에 대한 관심 확산과 미래농업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과급효과, 농업 현장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수상자 송준호 씨는 쌀을 조직배양기술을 통한 우량 무병묘(virus-free) 생산 모델 구축이라는 아이디어로 참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 2022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돼 체계적인 컨테이너(화분) 재배와 조직배양을 통한 조경수 생산, 신품종 육성 등 차별화된 영농경쟁력 혁신을 통해 성장 중에 있다.

송준호 씨는 "창업농인으로 고향에 기여해 정직하기까지 어려움이 커지만 부모님과 정읍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해 큰 보람을 느낀다. 청년창업농이라는 시명감과 목표의식을 갖고 농촌에서 희망을 찾는 미래 농업인들의 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244명의 청년창업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책 지원금, 임차지원, 이차보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안정적 초기 정착과 건실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태권도 보급·진흥·홍보 상호 연계사업 추진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맞손

무주군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지난 2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태권도 보급·진흥·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읍 천지가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정진국 위원장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이병하 조직위원장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글로벌 태권도 전문 인재 양성 및 양성을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태권도 보급·진흥·홍보에 관한 상호 연계사업 추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 연계 홍보 그리고 △두 기관 발전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정진국 위원장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태권도와 태권도 양성을 위해 반드시 설립이 꾸며야 한다"라며 "세계인이 태권도로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손을 잡은 민족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더 넓리, 더 확실히 알려져 설립 추진 등력을 얻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태권도의 중심 변화하는 태권도'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무주태권도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20개국 3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범 경연을 비롯해 글로벌 태권도 캠프, 품새 및 겨루기 경연, 지도자 간담회와 A매치(풀세, 겨루기)로 펼쳐진다.

문화행사로는 18일부터 21일까지 스텝프 투어를 비롯한 문화체험, 하여름 밤의 콘서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학생들,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우수'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학부생들이 최근 부여에서 열린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AI를 적용해 스마트팜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솔아·전혜진·정재영 학생(지도교수 김태곤)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및 AI 모델 기반 생육단계별 환경 제어 알고리즘 적용 미니 챔버 구현'이라는 연구 주제를 발표해 우수상을 인정받았다. 특히 학부생으로서 대학원생들 못지않은 결과를 도출해 더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기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공기관의 교육기부를 통해 전북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더불어 교육협력을 확산해 나가는 데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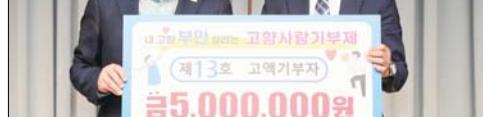
/정은성 기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오경택 목양 ENG 건축사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군수 권의현)은 (주)목양 ENG 건축사 사무소 오경택 대표가 3일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경택 대표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부안군 건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주)목양 ENG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서 2022년에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에 선정된 실력파이기도 하다.

오 대표는 "8년간 부안에서의 공직생활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라며 "언제나 마음속에 부안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권의현 부안군수는 "실력파 오대표님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었으나 부안의 자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신 오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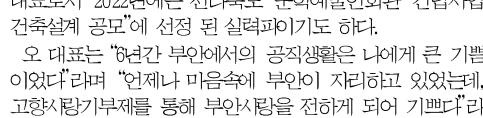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권의현 부안군수는 "실력파 오대표님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었으나 부안의 자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신 오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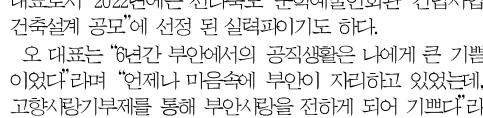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권의현 부안군수는 "실력파 오대표님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었으나 부안의 자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신 오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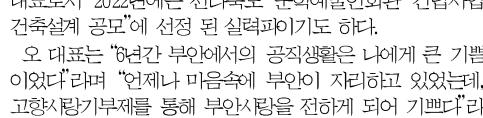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권의현 부안군수는 "실력파 오대표님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었으나 부안의 자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신 오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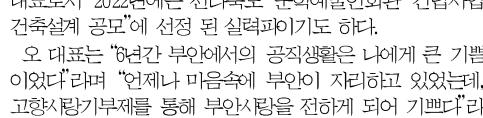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권의현 부안군수는 "실력파 오대표님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었으나 부안의 자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신 오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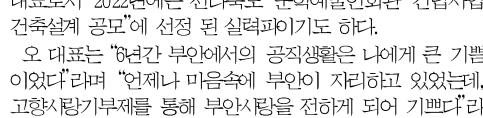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권의현 부안군수는 "실력파 오대표님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었으나 부안의 자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신 오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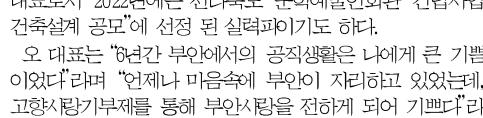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권의현 부안군수는 "실력파 오대표님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었으나 부안의 자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신 오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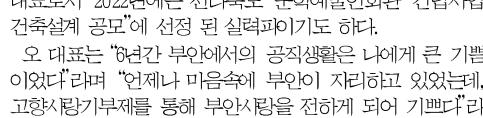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 명의 학생은 향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인지해 알림, 영상기반 식물 성장일자 작성, 병해증 조기 발견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상 학생들은 미니 챔버를 제작해 각종 센서에서



권의현 부안군수는 "실력파 오대표님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었으나 부안의 자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사랑을 전하신 오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